

## 2021년 베트남 라면의 트렌드는 ‘영양가가 풍부한 건강한 라면’

2021년 3월 22일, 하노이지사

### □ 키워드 : 채식라면

#### ○ 베트남 라면 생산기업인 UNIBEN, 영양가 높은 신제품 라면 개발에 박차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수, 통조림, 가공식품 등 일상소비재(FMCG)의 소비량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특히 라면의 경우 베트남 현지소비자들의 1인 라면 소비량이 ‘19년 대비 40% 가량 증가하였다고 함
- 글로벌 소비자 패널 조사기관 칸타 월드 패널(Kantar World Panel)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외식자제, 이동제한으로 인한 가정 내 식사 비율 확대가 라면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함
- 다만, 베트남 현지소비자들에게 라면과 같은 간편식품은 영양소보다 편리성이 더욱 중요한 패스트 푸드 제품으로써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 이를 타개하고자 여러 라면업체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버섯, 채소류를 넣은 라면 등을 개발하는 등 건강한 음식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소스류, 라면류 등을 생산하는 유니벤 라면회사(UNIBEN)에서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맛과 영양소가 함유된 신제품 라면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 대표적으로 쌀국수 라면, 매콤한 새우젓라면, 샤브샤브 버섯 라면, 미역라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신제품들은 경쟁기업인 Vina Acecook가 내놓은 건강한 이미지의 채식라면과 비슷하여 현재 베트남 라면시장의 트렌드는 ‘영양가가 풍부한 건강한 라면’ 이라고 볼 수 있음



파, 고수, 마늘 등이 다량 함유된 신제품 채식라면 사진(출처 : Uniben 웹사이트)

### ○ 시사점

- ‘20년 시작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외부활동 제한 등은 라면을 비롯한 FMCG(일용 소비재) 제품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원산지가 분명하고 건강한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도 제품의 성분,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움직임이 늘어났음
-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소 5년간 베트남 라면 트렌드는 UNIBEN에서 출시한 채식라면과 같은 건강한 라면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칼로리가 낮은 한국식 건면 (Non-Frying) 등을 꾸준히 홍보해보는 것이 주요해보임

### ○ 출처

- UNIBEN, 건강한 라면 출시 관련 뉴스기사

<https://vnexpress.net/uniben-chu-trong-yeu-to-dinh-duong-trong-mi-an-lien-4248791.html>